



여의도연구원

국민행복을 디자인합니다

Vol.2015-01

# 여연브리프

YDI BRIEF

발행일 2015년 1월 29일

## 2014년 전국 2030직장인 실태조사 - 직장·생활, 사회, 정치, 통일·남북관계 의식조사 -

### - 목 차 -

I. 조사 개요 .....	1
II. 2030직장인 실태조사 시사점 .....	2
III. 2030직장인 실태조사 분석 .....	5
참고자료: 2014년 전국 2030직장인 생활의식 조사결과 ...	20

작성 : 청년정책연구센터  
(02) 369-7935



# I.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본 조사는 2014년 대한민국 2030 직장인들의 직장·생활, 사회, 정치 그리고 통일·남북관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조사 대상: 전국 20~30대 직장인 남녀
- 표본 수 : 1,135명 (이메일 499명, 면접조사 636명)
- 표본 오차: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pm 2.91$  %
- 조사 방법: 대학생 정책자문연구원 약 100명의 지인 이메일조사 & 거리 면접 조사
- 조사 항목: 1) 직장·생활 2) 사회 3) 정치  
4) 통일·남북관계
- 조사 기간: 12월 4일 ~ 12월 10일 (6일간)

## Ⅱ. 2030직장인 실태조사 시사점

### 1. 직장·생활

#### □ 불필요한 스펙 경쟁, 일자리 미스매치까지~ 두 번 우는 취준생

대학생들은 취업 前 끊임없이 외국어 성적, 학점 등 ‘스펙 경쟁’에 몰두하며,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쉬는 것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스펙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공휴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쌓은 스펙, 특히 외국어 성적의 경우에는 직장인 5명 중 1명(20.5%)이 취업 후 가장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취업에 있어서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없는 현실 또한 큰 문제로 작용한다. 응답자 10명 중 4명(41.1%)은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과 계열(26.4%)보다 문과계열(44.2%)의 졸업생이 더 높은 비율로 전공 지식을 취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 □ 취업 前 학자금 대출, 취업 後 주택담보대출까지, 빚에 허덕이는 청년

2030 직장인의 10명 중 4명(40%)이 채무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비 마련(43%)이 가장 주된 이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학생 때의 학비 부담이 직장인이 되어서도 계속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며,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2030직장인들은 학비 마련에 이어 취업 후엔 주택 마련(32%)으로 인한 채무까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이자율 인하(39.6%)를 가장 원하고 있었다.

#### □ 화려한 모피스족?!) 현실은 앵그리맘

결혼한 2030 직장인 중 85.9%가 출산 의향이 있었고, 그 중 대다수(78.7%)는 맞벌이 부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상대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걸은 화려한 모피스족(MOFFICE)으로, 현실에선 앵그리맘(ANGRY MOM)으로 살아간다. 이에 대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2030 직장인은 워킹맘을 위한 제도인 ‘유연근무제’(28.9%)와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를 위한 ‘사내 분위기 마련’(42.1%)을 꼽았다.

1) 미시(MISSY)와 오피스(OFFICE)의 합성어로 전문적이고 세련된 직장여성을 뜻하는 신조어

## 2. 사회

### □ 내 세금 아까워, 선별적 복지 원해

2030 직장인은 평균적으로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23% 수준의 혜택만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2030 직장인의 복지 혜택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도 소극적이었으며, 절반 이상이 보편적 복지(39.1%)보다 선별적 복지(53.6%)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화두가 되는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은 57.1%, 무상보육은 47.8%의 응답자가 대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3. 정치

### □ 74.9%는 정치가 삶에 영향 미쳐, 가장 큰 영향 주는 매체는 TV

2030 직장인의 74.9%는 정치가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는 TV(44.5%), SNS 등 인터넷(29.2%), 신문(11.2%)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 분류하면, 뉴스채널은 JTBC(22.8%), SNS는 페이스북(50.9%), 신문으로는 조선일보(11.7%)가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쳤다. 뉴스채널의 경우, JTBC 다음으로 KBS(19.3%), YTN(13.7%), MBC(9.6%), SBS(7.1%), TV조선(2.0%), 채널A(0.4%), MBN(0.4%), 뉴스Y(0.4%)가 뒤를 이었는데, 종합편성채널인 'JTBC'가 지상파 3사에 비해서도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 40.9%의 이념적 지향은 중도, 62.8%는 선호정당 없어

2030 직장인의 정치성향은 중도(40.9%), 진보(20.8%), 보수(13.7%) 순으로, 중도적 성향이 가장 많아, 뚜렷한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62.8%)가 선호정당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그 뒤로 새정치민주연합(18.5%), 새누리당(13.5%), 통합진보당(1.3%), 정의당(2.0%)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정당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정치 성향의 일치(39.3%)를 가장 많이 꼽았다.

## □ 새누리당은 통일·외교 강하지만, 복지가 가장 약함

새누리당은 통일·외교(34.2%)를 가장 잘하며, 복지(10.2%)분야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37.1%)를 가장 잘하며, 통일·외교(12.1%)분야가 가장 부족했다. 이는 각 정당이 가장 잘하는 분야와, 가장 부족한 분야가 뚜렷하게 교차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 4. 대북·통일 의식

### □ 통일은 먼 나라 일? 48.6%는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음

2030 직장인의 절반 정도(48.6%)는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으며 3명 중 1명(33.3%)은 30년 이후에야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 또한 큰 문제다. 실제 직장인의 36.7%가 북한을 적대적으로 인식했으며, 통일 후 남북 통합의 저해요소로 상호 불신 및 적대감(39.0%)을 가장 높은 비율로 꼽았다.

### □ 통일 위해 사회·문화교류 필요, 통일 후 경제 활성화 기대

2030 직장인 3명 중 1명(27.4%)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문화교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경제협력(20.4%), 인도적 교류(17.4%), 정치·군사대화(16.8%)가 뒤를 이었다. 통일이 된 후에는 신성장 동력확보(40.5%)에 가장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어서 전쟁 가능성 감소(30.9%), 국제적 위상 증대(11.1%), 민족 동질성 회복(10.4%)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통일이 된 후 과반수가(51.5%) 북한에서의 취직 및 거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2030직장인 실태조사 분석

#### 1. 직장 & 생활

□ 2030 직장인의 3대 어려움

① 취업과 전공활용의 어려움

○ 취업과정에서 '외국어성적 취득·취업정보 부족'에 어려움을 느낌

취업에 가장 어려움을 느낀 부분	비율(%)
정신적 압박	27.8
외국어 등 취업 스펙	23.8
취업정보 부족	19.4
맞춤 일자리 부재	16.8
취업 준비 비용 부담	5.4
기타	2.6

○ 그러나 5명 중 1명은 실제 취업 후 외국어성적이 불필요하다고 응답

- 취업 후 가장 불필요한 스펙으로 봉사활동(35.7%), 외국어성적(20.5%), 학점(20.3%), 컴퓨터능력(18.8%), 석박사 학위(18%), 학벌(16.4%), 대외활동 및 공모전 경력(14.5%), 인턴 및 아르바이트(12.9%) 순으로 응답함(복수응답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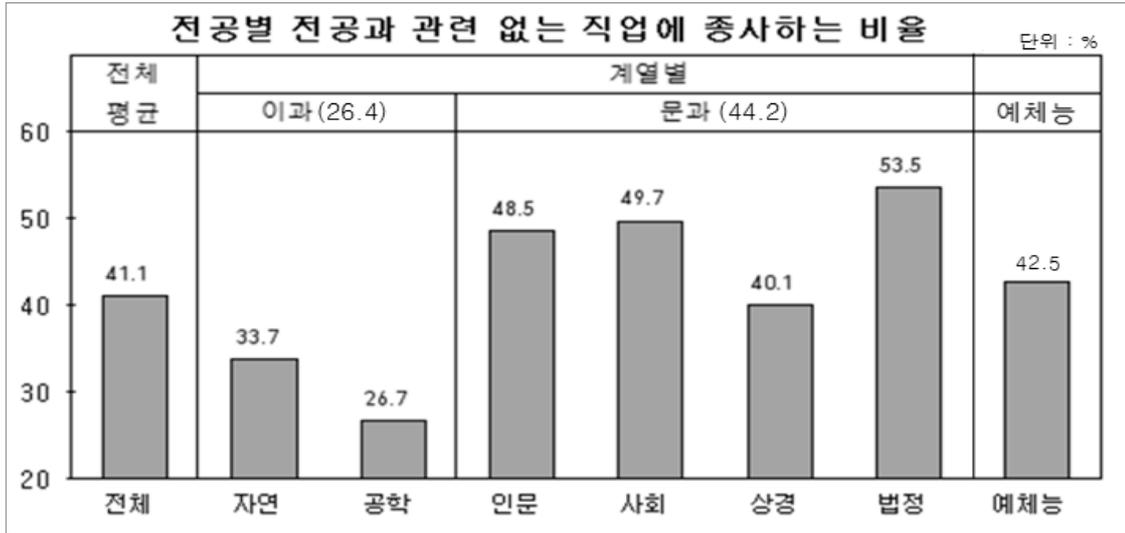
○ 취업정보를 얻는 데에 공적영역인 정부와 학교는 큰 비중이 없음

- 2030 직장인들은 취업준비과정에서 주로 사적영역인 지인·교수(35.0%), 취업사이트(26.6%), 인터넷 카페(12.8%)에서 취업정보를 얻었음
- 공적영역인 정부기관 사이트(2.8%)와 대학교 취업지원센터(8.9%)이용은 11.7%에 그침

※ 대학생들의 취업정보 습득 경로 (2014년 전국 대학생 실태백서 中)  
 지인·교수(67.5%), 인터넷 취업사이트(46.2%), 대학의 취업 지원센터(20.8%), 취업박람회 및 기업 입사설명회(13.2%), 고용노동부 워크넷(6.2%) 순으로 응답함

○ 2030 직장인 10명 中 4명은 전공과 관련 없는 직업에 종사

- 문과계열(44.2%)이 이과계열(26.4%)보다 전공과 관련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음



- 전공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 :  
전공 관련 일자리가 적음(17.4%),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음(13.0%), 전공 관련 취업시장의 정보 부족(2.9%) 순으로 응답함

○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개월

- 인문 계열이 10.63개월로 가장 길고, 상경 계열이 6.11개월로 가장 짧음

..〈생략〉..

올해 6월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9.5%에 달했다. 올해 2월 2000년 이후 10.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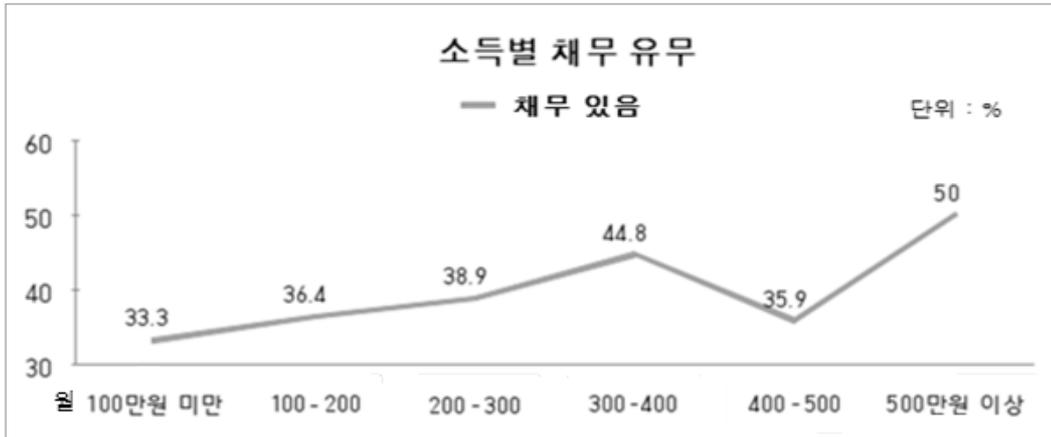
대학과 일터를 연계한 직업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실해 젊은 층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이 학교를 졸업한 뒤 첫 직장을 구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12개월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개월)보다 1개월 더 늘어난 수치다.

매일뉴스, 〈韓, 대학 졸업후 1년은 백수 막상 취업해도 2년도 안돼 나가〉, 2014. 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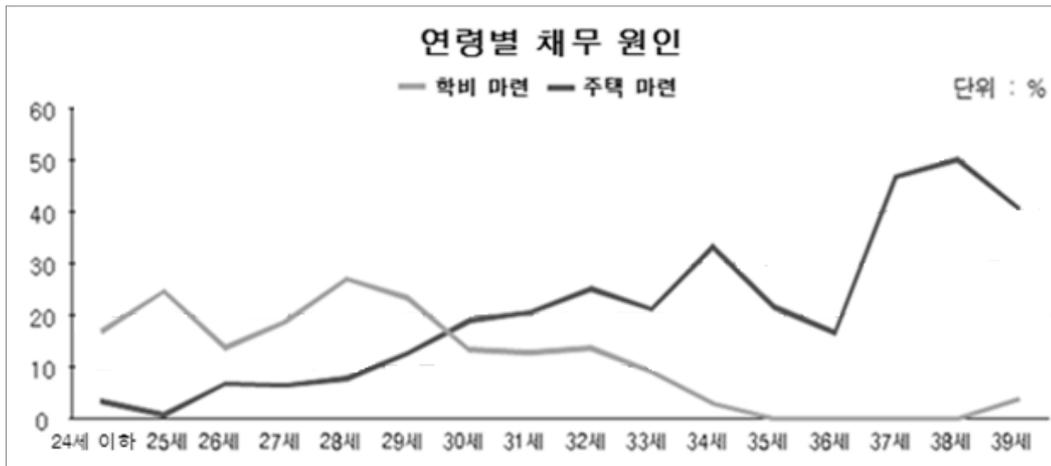
## ② 경제적 어려움

### ○ 2030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채무 있음

- 채무의 주된 원인 : 학비마련(43%), 주택마련(32%), 생활비(7%) 순으로 응답함
-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채무가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 20대는 학비마련, 30대는 주택마련이 주된 채무 원인



※ 대학생들의 채무원인 (2014년 전국 대학생 실태백서 中)  
채무가 있는 대학생의 10명 중 7명은 학비(등록금+교재비)부담이 원인

- 기혼자 中 절반(50.0%)이 주택마련을 위한 채무를 지고 있음

○ 그렇다면 주택마련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 주택담보대출이자율인하

- 주택담보대출이자율인하(39.6%) → 분양가상한제적용(23.3%) → 주택공급 확대(21.8%) → 대출이자소득공제 한도 증가(6.2%) → 중개수수료인하(1.8%) → 기타(1.8%)순으로 응답함

○ 2030 직장인 4명 중 1명은 임금에 불만족

- 직장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 임금(27.1%), 과도한 업무(21.5%), 인간관계(13.7%), 사내 복지(11.1%), 회사규모와 비전(10.1%), 고용불안정성(8.6%) 순으로 응답함
- 직군별 임금 불만족 정도는? : 공공기관(39.0%), 중견 및 중소기업(26.8%), 대기업(16.7%), 전문직(18.7%), 자영업(15.0%)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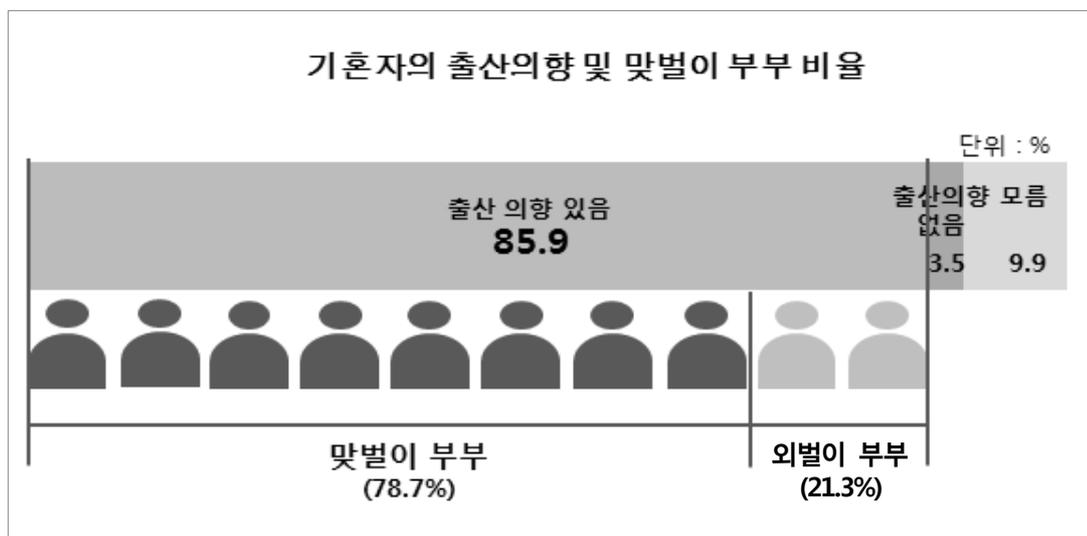
③ 출산 및 자녀양육의 어려움

○ 2030 직장인의 약 70%는 자녀 계획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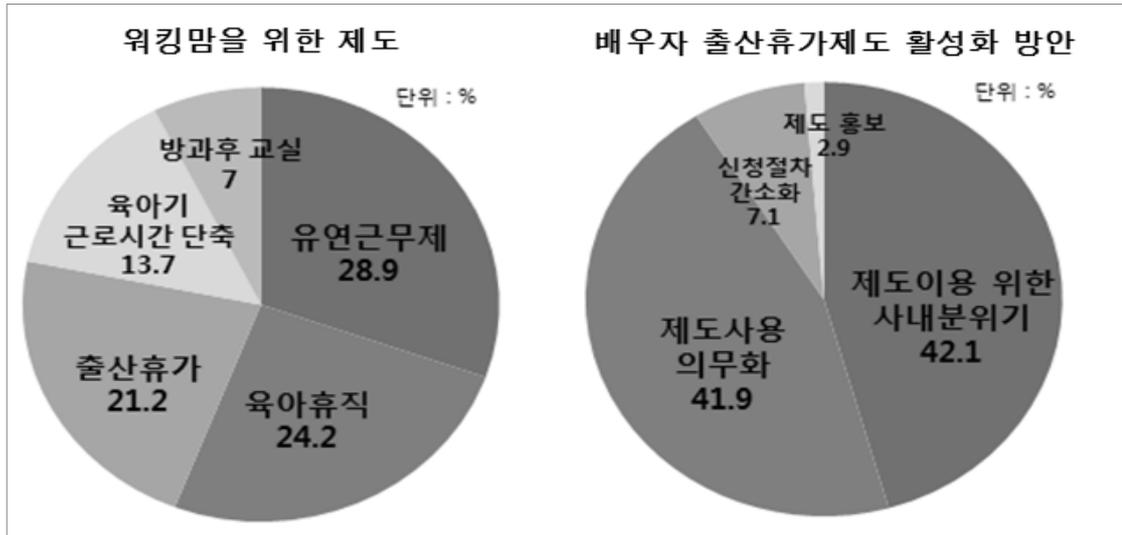
- 희망 자녀수는 2명(43.2%), 1명(15.5%), 3명 이상(10%)순으로 응답함

○ 출산을 원하는 기혼자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

- 기혼자 대부분이 출산을 원하며(85.9%) 이 중 맞벌이 부부가 78.7%를 차지



○ 일과 가정을 함께 돌보기 위한 방안은? : 유연근무제 · 사내분위기 마련



- 가장 필요한 워킹맘 지원제도로 남성(27.5%), 여성(30.2%) 모두 '유연 근무제'를 택함
- 배우자(남편)출산휴가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남성은 '제도사용 의무화'(42.3%), 여성은 '사내분위기 조성'(42.6%)을 꼽음

워킹맘 10명 중 9명이 일과 가정, 육아의 병행을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문화네트워크가 전국 '3040 워킹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2014 워킹맘 고통지수'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워킹맘 90.9%가 스스로 힘들다고 평가했다.

전체 워킹맘 고통지수(5점 척도)는 지난해에 비해 0.04 낮아져 3.29점으로 개선됐다. ... (생략) ...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의 정책적 지원'이 4.13점, '직장 생활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이 4.03점을 기록해 정책적 지원과 육아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퇴근 후에도 쉴 수가 없다' 3.81점, '집안일'과 '육아 분담' 미흡이 각각 3.76점, 3.73점 등으로 나타나 여전히 가사와 육아 분담이 잘 이뤄지지 않음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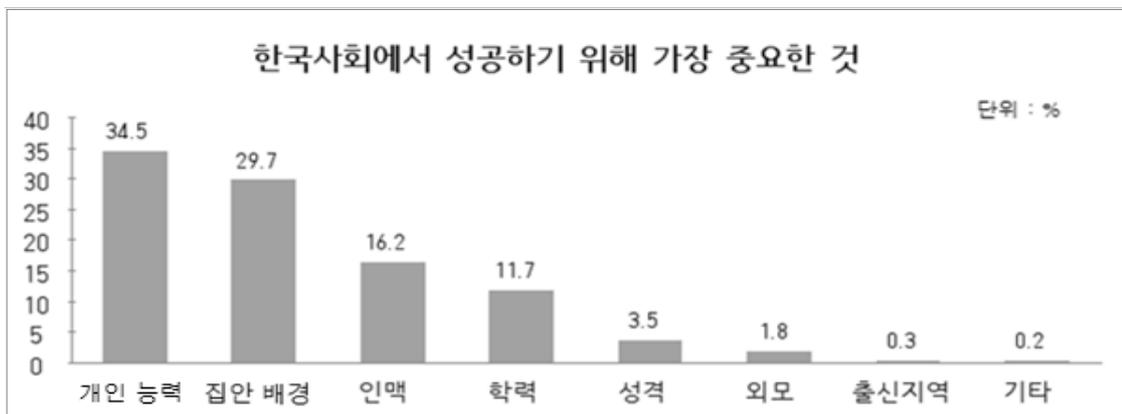
서울신문, <워킹맘 90% "육아·일 병행 고통스럽다">, 2014. 7. 2.

## 2. 사회

### □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 ○ 사회·경제적 성공 조건은 개인능력과 집안배경

-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능력(34.5%), 집안배경(29.7%), 인맥(16.2%), 학력(11.7%), 성격(3.5%), 외모(1.8%), 출신지역(0.3%), 기타(0.2%)순으로 응답함



#### ○ 2명 중 1명은 빈부격차를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이라고 생각

-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양상은 빈부갈등(52.9%), 이념갈등(18.5%), 지역갈등(11.4%), 세대갈등(10.7%), 성별갈등(4.5%), 기타(1.5%)순으로 응답함

...〈생략〉...

우리나라의 경제적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산출되는 신(新)지니계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현재 0.35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0.314를 크게 웃돌며 회원국 중 6위에 기록돼 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0.4를 넘으면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생략〉...

문화일보, 〈빈부격차 갈수록 심각... 양극화 해소안 찾아야〉, 2014. 8. 18.

□ 복지에 대한 인식

○ 복지 혜택에 대한 신뢰가 낮음

- 국가로부터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23%만 혜택으로 되돌려 받고 있다고 생각함
- 특히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45.2%) 국가로부터 세금의 10% 이하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고 응답함
-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보다 현상유지를 원함 :  
현재 세금부담률인 13.4%와 비슷한 14.9%까지 세금을 부담할 의향 있음

○ 2명 중 1명은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원함

- 2030 직장인은 가장 필요한 복지 방식으로, 선별적 복지(53.6%), 보편적 복지(39.1%), 모르겠다(6.9%)순으로 응답함

○ 무상급식·무상보육을 대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함

	무상급식	무상보육
선별실시(%)	57.1	47.8
전면계속(%)	33.6	45.0

※ 대학생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생각 (2014년 전국 대학생 정치인식 조사 中)  
2030 직장인과는 반대로 보편적복지에 대해 찬성(54.5%), 반대(30.0%), 잘 모르겠다(15.2%) 순으로 응답함

□ 연금 정책에 대한 인식

○ 국민연금에 대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 국민연금 납부 선택제<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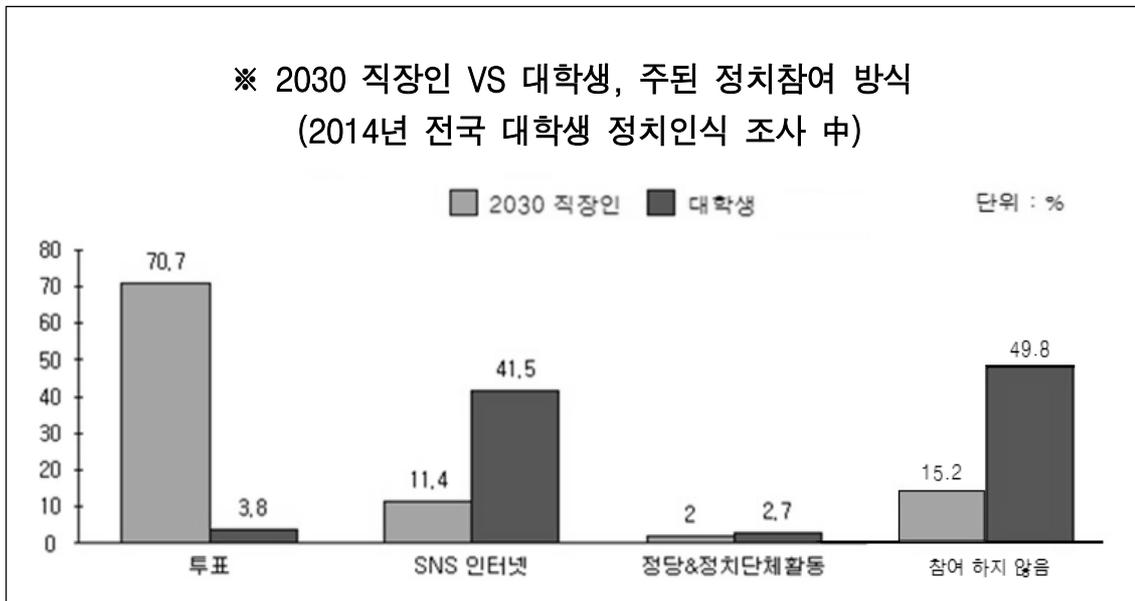
- 국민연금 납부 선택제 도입(34.1%) → 국민연금 혜택 확대(25.4%) → 수령액 확대(15.2%) → 납부 금액의 축소(11.7%) → 잘 모르겠다(10.2%)순으로 응답함

2)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3. 정치

#### □ 정치 참여

- 약 75%는 정치가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 정치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크게 영향 준다(25.9%), 조금 영향 준다(49%), 별로 영향주지 않는다(20.2%), 전혀 영향주지 않는다(4.8%)순으로 응답함
- 주된 정치참여 방법은 투표
  - 주된 정치참여방법으로는 투표(70.7%), SNS(5.8%), 인터넷 커뮤니티(5.6%), 정치단체활동(1.6%), 정당가입(0.4%), 시위·집회 참여(0.4%) 순으로 응답함



#### □ 정치 성향

- 10명 중 4명의 정치성향은 중도
  - 중도(40.9%), 잘 모르겠다(24.5%), 진보(20.8%), 보수(13.7%)순의 정치성향을 보임
- 60% 이상이 선호정당 없음
  - 선호정당은 없음(62.8%)이 가장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18.5%), 새누리당(13.5%), 통합진보당(1.3%), 정의당(2.0%), 기타(0.4%)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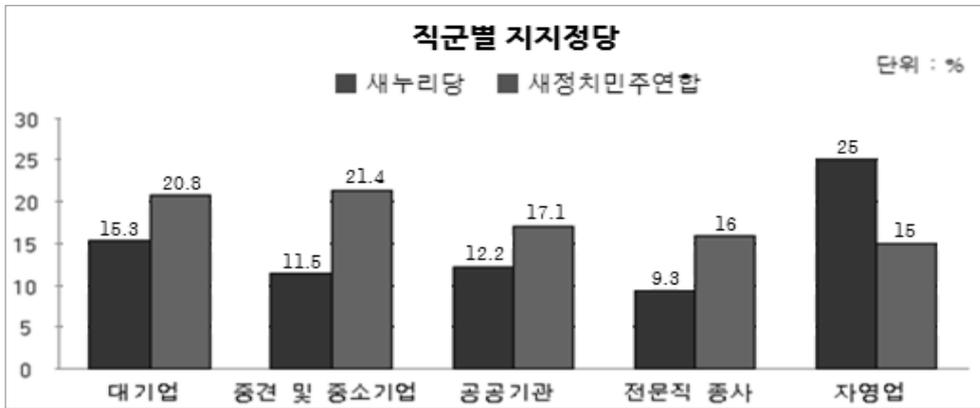
□ 그렇다면 선호하는 정당이 있는 응답자 특성

○ 선호정당 지지 이유

-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정치성향의 일치(39.3%)가 가장 많았고, 정책의 선호(20.1%), 지인의 영향(14.0%), 특정 정치인의 영향(14.0%)순으로 응답함

○ 직군별 지지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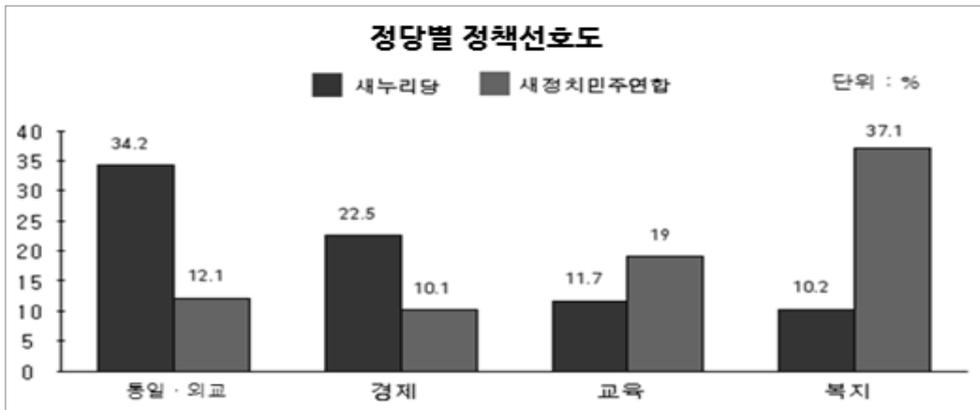
- 자영업 종사자(25.0%)는 새누리당을, 그 외 직군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음
-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 종사자의 경우 새누리당 지지비율(11.5%)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비율(21.4%)이 두 배 가량 높음



□ 정당별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

○ 새누리당 : 통일 · 외교 → 경제 → 교육 → 복지 순

새정치민주연합 : 복지 → 교육 → 통일 · 외교 → 경제 순



※ 대학생들의 정당별 선호도 (2014년 전국 대학생 정치인식 조사 中)  
 대학생들의 정당별 평균 선호도 점수는 새누리당 3.22점, 새정치민주연합은 5.02점이라고 응답함 (10점 만점)

□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매체

○ TV와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이 가장 큼

정치 참여 매체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비율(%)
TV	44.5
포털뉴스 및 SNS 등 인터넷	29.2
신문	11.2
지인	8.1
서적 및 잡지	2.7

※ 대학생은 TV보다 인터넷 (2014년 전국 대학생 정치인식 조사 中)  
 대학생의 경우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매체는 인터넷(39.4%), TV(23.3%), 지인(16.9%), 신문(11.5%)순으로 응답함

○ 가장 영향력 큰 뉴스채널 : 'JTBC'

- JTBC(22.8%), KBS(19.3%), MBC(9.6%), SBS(7.1%), TV조선(2%), 채널A(0.4%), MBN(0.4%) 순으로 응답함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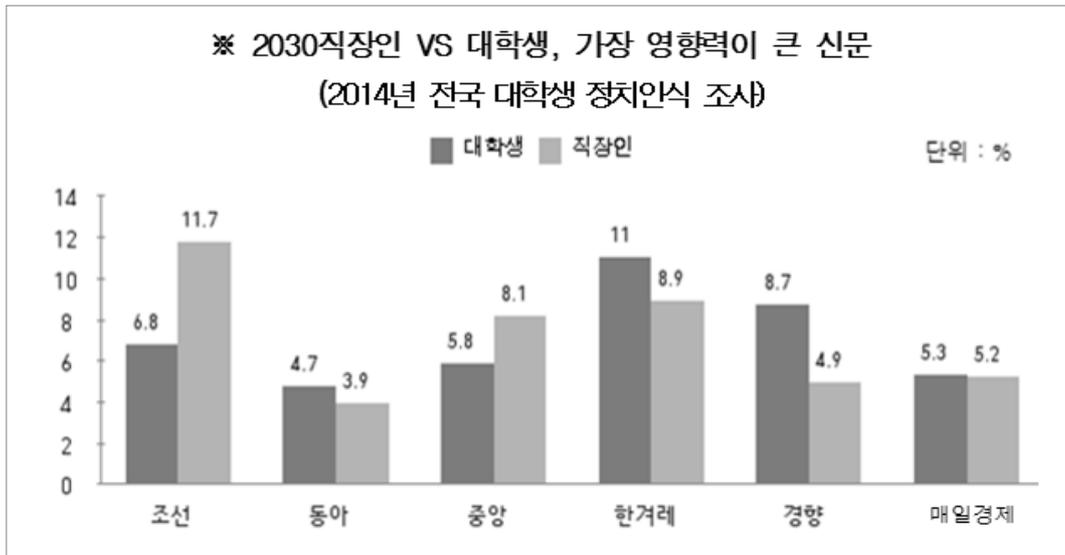
20대의 선호 뉴스 채널은 KBS 21%, JTBC 19%, YTN 14%, MBC 11%, SBS 9% 순이며, 20대 열 명 중 두 명(20%)은 즐겨보는 뉴스 채널이 없다고 답했다.  
 30대는 JTBC 25%, KBS 16%, YTN 15%, MBC 14%, SBS 9% 순이었으며, 40대는 KBS 23%, JTBC 16%, MBC 14%, YTN 13%, SBS 10% 순으로 나타나 3040 세대의 뉴스 선호도는 여러 채널로 분산됐다.

...〈생략〉...

데이터뉴스, 〈한국인이 즐겨보는 뉴스 채널〉, 2014. 5.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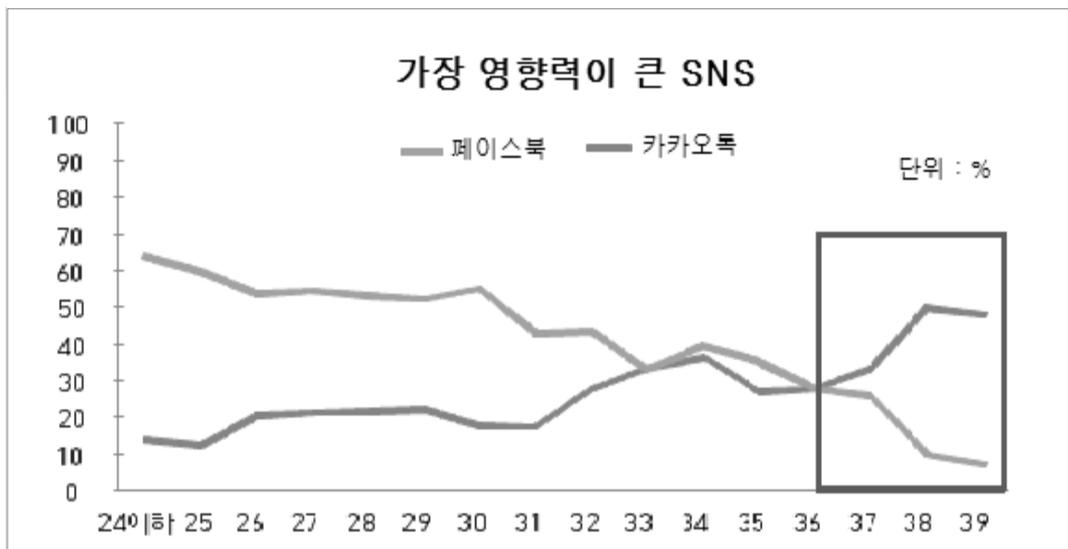
○ 가장 영향력이 큰 신문 : '조선일보'

- 조선일보(11.7%), 한겨레(8.9%), 중앙일보(8.1%), 매일경제(5.2%), 경향신문(4.9%), 동아일보(3.9%), 한국일보(1.1%) 순으로 응답함



○ 가장 영향력이 큰 SNS : '페이스북'

- 2030 직장인 84%가 SNS를 이용한다고 응답함
- 가장 영향력이 큰 SNS는 페이스북(50.9%), 카카오톡(21.3%), 트위터(5.8%), 카카오프로필(1.3%) 순으로 응답함
- 30대 후반은 페이스북보다 카카오톡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음



## 4. 통일 · 남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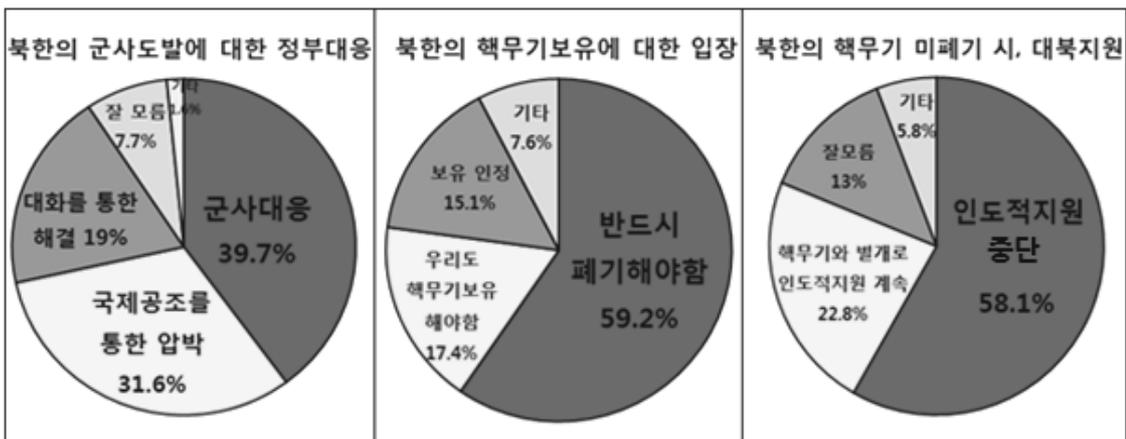
### □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

#### ○ 북한을 적대적으로 생각

- 북한을 적대(36.7%), 협력(31.5%), 경쟁(4.5%) 순으로 응답함
- 특히 상호불신·적대감은 통일 이후 남북한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꼽힘(39.0%)

남북 통합 저해 요소	비율(%)
상호불신·적대감	39.0
경제적 격차	31.0
역사·문화적 차이	17.4
법제도 차이	4.6
기타	1.3

#### ○ 북한의 군사도발 및 핵무기보유에 강경한 태도



####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2명 중 1명은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을 원함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51.2%), 적극개입(20.4%), 잘 모르겠다(10.9%), 민간NGO로 해결(9.2%), 개입해선 안 된다(5.7%), 기타(2.1%)순으로 응답함

□ 통일에 대한 의식

○ 2030 직장인의 절반,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1%,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48.6%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3명 중 1명은 통일 가능 시기를 30년 이후로 전망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후
4.1%	17.4%	27.5%	17.7%	33%

※ 대학생이 생각하는 통일 가능 시기 (2013년 전국 대학생 실태백서 中)  
대학생은 통일 가능 시기를 20년 이내(24.6%)로 전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2030직장인 보다 통일시기를 가깝게 인식하고 있음

○ 2명 중 1명은 통일세 장기 지불 의향이 없음

- 지불의향 없음(51.6%), 있음(25.7%), 잘 모르겠다(22.5%) 순으로 응답함

...〈생략〉...

20대, 30대, 40대는 경제성장이 촉진되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각각 30.2%, 33.4%, 28.4%로 가장 높았다.

통일 시점에 대해서는 28.5%가 6~1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으로 내다봤고, 11~20년 이내가 18.2%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20대를 제외하고 동일했다. 20대는 통일이 앞으로 21~50년 이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28.8%로 가장 높았다.

...〈생략〉...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으로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1년에 10만원 미만이면 낼 수 있다는 의견이 37.7%로 가장 많았다. 17.4%는 세금을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2.3%나 되었다.

...〈생략〉...

아산통일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14. 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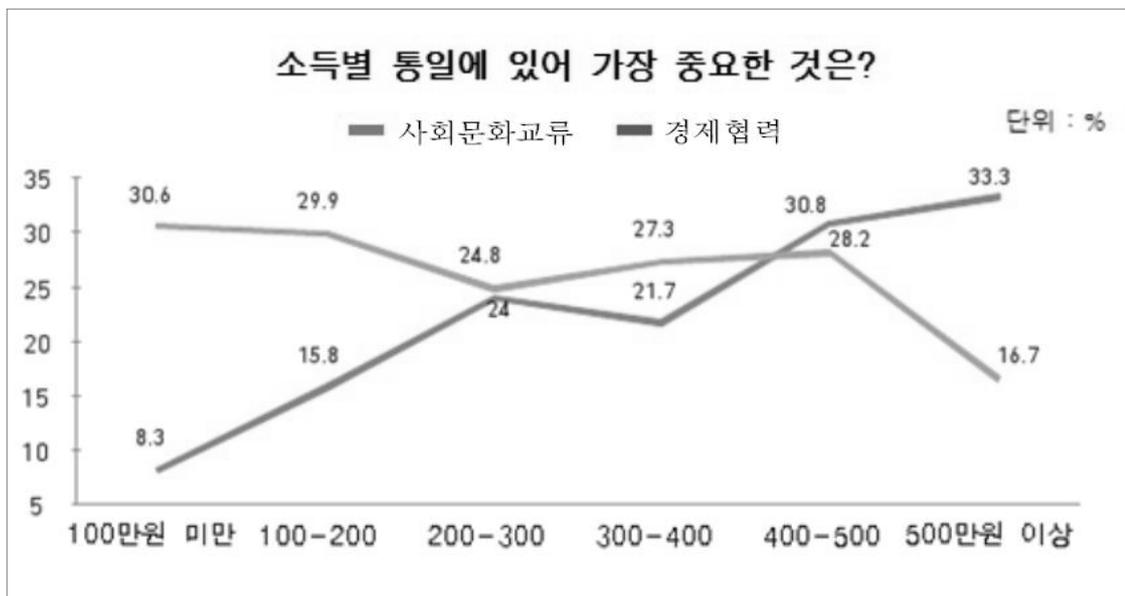
□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 : 사회·문화교류

○ 북한에 대한 관심 분야 : 정치·경제 < 사회·문화

- 북한의 정치(17.1%), 경제(14.7%)에 대한 관심은 31.8%로 나타났고, 그 외에 문화(11.3%), 사고방식(11.1%), 일상생활(10.9%), 북한사람(6.3%), 언어(2.3%), 교육시스템(2.3%)등 북한의 사회문화에 관심 갖는 비율이 44.2%로 더 높게 나타남

○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사회문화교류가 가장 필요

- 남북 관계개선에 가장 도움 되는 것으로 사회·문화교류(27.4%), 경제협력(20.4%), 인도적 교류(17.4%), 정치·군사대화(16.8%), 잘 모르겠다(10.8%) 순으로 응답함
- 그러나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문화교류보다 경제협력이 남북 관계개선에 도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남북관계개선책 (2013년 전국 대학생 실태백서 中)  
 대학생들은 ‘정치·군사대화’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가장 도움 된다고 답한 비율이 37.4%로 가장 높았고, 인도적 교류(21.5%), 경제협력(18.1%), 사회문화교류(14.7%), 기타(3.9%), 대북지원(3.3%), 모름(1%) 순으로 응답함

□ 통일 후 기대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

○ 10명 중 4명은 통일 후 신성장 동력 확보에 가장 큰 기대감

- 통일 후 가장 큰 이득은 신성장 동력확보(40.5%), 전쟁 가능성 감소(30.9%), 국제적 위상 증대(11.1%), 민족 동질성 회복(10.4%), 잘 모르겠다(6.5%)순으로 응답함

○ 2명 중 1명은 통일 후 북한에서 취직 및 거주 의향 있음

- 통일 후 북한에서 일 할 기회가 있다면 거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건이 맞으면 가서 살겠다(50.2%), 무조건 가서 살겠다(1.3%)는 응답이 51.5%로 가지 않겠다(37.2%)는 응답보다 높았음

## 참고자료: 2014년 전국 2030직장인 생활의식조사 설문

##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전 체		1135	100.0
성별	남자	539	47.5
	여자	596	52.5
연령	24살 이하	152	13.4
	25살	122	10.7
	26살	117	10.3
	27살	154	13.6
	28살	115	10.1
	29살	103	9.1
	30살	90	7.9
	31살	63	5.6
	32살	44	3.9
	33살	33	2.9
	34살	33	2.9
	35살	37	3.3
	36살	18	1.6
	37살	15	1.3
	38살	10	.9
	39살	27	2.4
		무응답	2
지역	서울	439	38.7
	경기	268	23.6
	인천	79	7.0
	강원	39	3.4
	대전	42	3.7
	세종	9	.8
	충북	6	.5
	충남	11	1.0
	광주	39	3.4
	전북	39	3.4
	전남	27	2.4
	대구	46	4.1
	경북	16	1.4
	경남	7	.6
	울산	7	.6
	부산	56	4.9
	제주	2	.2
	기타	3	.3

		사례수	비율%
전공	인문 계열	237	20.9
	사회 계열	185	16.3
	상경 계열	177	15.6
	법정 계열	43	3.8
	자연 계열	101	8.9
	공학 계열	221	19.5
	예체능 계열	87	7.7
	기타	76	6.7
	무응답	8	.7
최종 학력	학사	991	87.3
	석사	102	9.0
	박사	8	.7
	무응답	34	3.0
혼인상태	미혼	993	87.5
	결혼	142	12.5
주거형태	동거인 없음(1인 가구)	244	21.5
	부모님과 동거	647	57.0
	친인척 및 형제자매와 동거	47	4.1
	친구 및 룸메이트와 동거	51	4.5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140	12.3
	기타	4	.4
	무응답	2	.2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72	6.3
	100~200만원 미만	385	33.9
	200만원~300만원 미만	416	36.7
	300만원~400만원 미만	143	12.6
	400만원~500만원 미만	39	3.4
	500만원 이상	30	2.6
	소득 없다	44	3.9
	무응답	6	.5
직장 유형	대기업	216	19.0
	중견 및 중소기업	355	31.3
	공공기관	205	18.1
	전문직 종사	75	6.6
	자영업	40	3.5
	기타	236	20.8
	무응답	8	.7

## □ 조사결과

### 인적사항

####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47.5%)      ② 여자 (52.5%)

####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만 나이가 아닌 현재 나이)

- ① 24살 이하 (13.4%) ② 25살 (10.7%) ③ 26살 (10.3%) ④ 27살 (13.6%) ⑤ 28살 (10.1%)  
 ⑥ 29살 (9.1%) ⑦ 30살 (7.9%) ⑧ 31살 (5.6%) ⑨ 32살 (3.9%) ⑩ 33살 (2.9%)  
 ⑪ 34살 (2.9%) ⑫ 35살 (3.3%) ⑬ 36살 (1.6%) ⑭ 37살 (1.3%) ⑮ 38살 (0.9%)  
 ⑯ 39살 (2.4%)

#### 3. 귀하는 현재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① 서울 (38.7%) ② 경기 (23.6%) ③ 인천 (7.0%) ④ 강원 (3.4%) ⑤ 대전 (3.7%)  
 ⑥ 세종 (0.8%) ⑦ 충북 (0.5%) ⑧ 충남 (1.0%) ⑨ 광주 (3.4%) ⑩ 전북 (3.4%)  
 ⑪ 전남 (2.4%) ⑫ 대구 (4.1%) ⑬ 경북 (1.4%) ⑭ 경남 (0.6%) ⑮ 울산 (0.6%)  
 ⑯ 부산 (4.9%) ⑰ 제주 (0.2%) ⑱ 기타 (0.3%)

#### 4. 귀하의 대학 재학 당시 전공은 무엇입니까?

- ① 인문 계열 (20.9%) ② 사회 계열 (16.3%) ③ 상경 계열 (15.6%) ④ 법정 계열 (3.8%)  
 ⑤ 자연 계열 (8.9%) ⑥ 공학 계열 (19.5%) ⑦ 예체능 계열(7.7%) ⑧ 기타 (6.7%)

#### 5.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학사 (87.3%) ② 석사(9.0%) ③ 박사(0.7%)

#### 6.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미혼(87.5%) ② 결혼(12.5%) ③ 이혼(0.0%) ④ 사별(0.0%)

#### 7. 귀하의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동거인 없음(1인 가구) (21.5%)      ② 부모님과 동거 (57.0%)  
 ③ 친인척 및 형제자매와 동거 (4.1%)      ④ 친구 및 룸메이트와 동거 (4.5%)  
 ⑤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12.3%)      ⑥ 기타 (0.4%)

#### 8.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6.3%)      ② 100~200만원 미만 (33.9%)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36.7%)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  
 ⑤ 400만원~500만원 미만 (3.4%) ⑥ 500만원 이상 (2.6%)      ⑦ 소득 없다 (3.9%)

#### 9. 귀하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대기업 (19.0%)      ② 중견 및 중소기업 (31.3%)  
 ③ 공공기관(공무원 및 공기업 포함) (18.1%)  
 ④ 전문직 종사(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6.6%) ⑤ 자영업(3.5%)      ⑥ 기타(20.8%)

## I. 직장

### 1. 귀하는 직장생활 몇 년 차입니까?

- ① 1년 미만 (28.9%)    ② 1년 (15.5%)    ③ 2년 (15.5%)    ④ 3년 (11.5%)    ⑤ 4년 (7.6%)  
⑥ 5년 (5.1%)    ⑦ 6년 (3.1%)    ⑧ 7년 (3.2%)    ⑨ 8년 (2.0%)    ⑩ 9년 (1.6%)  
⑪ 10년 이상 (5.2%)

### 2. 귀하는 전공 관련 직업군에 종사하십니까?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공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 (58.9%)    ②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13.0%)  
③ 전공 관련 취업시장이 작아서 (17.4%)    ④ 전공 관련한 취업시장의 정보가 부족해서 (2.9%)  
⑤ 기타 (3.3%)

### 3. 귀하는 직장생활을 앞으로 몇 년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평균 20.08 )년

### 4.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임금 (27.1%)    ② 회사 규모 및 비전 (10.1%)    ③ 사내 복지 (11.1%)  
④ 과도한 업무 (21.5%)    ⑤ 인간관계(상사, 동료, 부하직원 등) (13.7%)  
⑥ 고용불안정성 (8.6%)    ⑦ 기타 (3.3%)

### 5. 귀하는 총 몇 명의 자녀를 낳을 예정입니까?

- ① 0명 (5.9%)    ② 1명 (15.5%)    ③ 2명 (43.2%)    ④ 3명 (7.9%)    ⑤ 4명 이상 (2.1%)  
⑥ 아직 모르겠다 (24.4%)

### 6. (기혼자만) 귀하는 현재 맞벌이 부부입니까?

- ① 그렇다 (79.6%)    ② 아니다 (19.7%)

### 7. 귀하는 배우자(남편) 출산휴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 최소 3일간 (최대 5일) 휴가를 청구할 수 있음

- ① 제도사용 의무화 (41.9%)    ② 신청절차 간소화 (7.1%)    ③ 제도에 대한 홍보 (2.9%)  
④ 제도를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마련 (42.1%)    ⑤ 기타 (0.5%)

### 8. 귀하는 워킹맘에게 가장 도움 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본인 및 배우자 출산휴가 정책 (21.2%)    ② 육아휴직 (24.2%)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7%)    ④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7.0%)  
⑤ 유연근무제(근무시간대 조절) (28.9%)    ⑥ 기타 (1.0%)

### 9. 귀하가 만약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면 퇴직 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 ① 창업 (20.8%)    ② 이직 (31.9%)    ③ 해외취업 (7.2%)  
④ 결혼 혹은 육아 (17.6%)    ⑤ 휴식 (11.5%)    ⑥ 학업 (7.2%)    ⑦ 기타(0.6%)

10. 귀하는 현재 채무가 있습니까? 있다면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채무 없음 (61.9%) ② 학비 마련 (16.5%) ③ 주택비용 마련 (12.2%)  
 ④ 생활비용 마련 (2.6%) ⑤ 결혼 비용 마련 (1.9%) ⑥ 육아비용 마련 (0.1%)  
 ⑦ 사업 및 창업비용 마련 (1.2%) ⑧ 상속된 채무 (0.4%) ⑨ 기타(0.3%)

11. 귀하는 내집마련을 위해서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분양가 상한제 적용 (23.3%) ② 주택담보 대출이자율 인하 (39.6%)  
 ③ 부동산 중개수수료인하 (1.8%) ④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증가 (6.2%)  
 ⑤ 주택공급확대 (21.8%) ⑥ 기타 (1.8%)

II. 정치

12. 귀하의 정치성향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보수 (13.7%) ② 중도 (40.9%) ③ 진보 (20.8%) ④ 잘 모르겠다 (24.5%)

13. 귀하의 삶에 정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 ① 크게 영향을 준다 (25.9%) ② 조금 영향을 준다 (49.0%)  
 ③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2%) ④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4.8%)

14.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 ① 새누리당 (13.5%) ② 새정치민주연합(18.5%) ③ 통합진보당 (1.3%) ④ 정의당 (2.0%)  
 ⑤ 없다 (62.8%) ⑥ 기타(0.4%)

14-1. (14번의 ⑤번 응답자를 제외하고 전부)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정치성향의 일치 (39.3%) ② 정당의 정책 (20.1%) ③ 특정 정치인의 영향 (14.0%)  
 ④ 주변 지인(가족, 친구 등)의 영향 (14.0%) ⑤ 기타 (1.9%)

\* 아래 정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15. -새누리당 1순위 ①복지 (10.2%) ②경제 (22.5%) ③교육 (11.7%) ④통일·외교 (34.2%)  
 2순위 ①복지 (17.9%) ②경제 (30.0%) ③교육 (34.4%) ④통일·외교 (17.7%)  
 3순위 ①복지 (29.3%) ②경제 (22.3%) ③교육 (34.2%) ④통일·외교 (14.2%)  
 4순위 ①복지 (39.4%) ②경제 (19.3%) ③교육 (16.2%) ④통일·외교 (25.2%)

16. -새정치민주연합 1순위 ①복지 (37.1%) ②경제(10.1%) ③교육 (19.0%) ④통일·외교 (12.1%)  
 2순위 ①복지 (24.5%) ②경제(25.6%) ③교육 (33.9%) ④통일·외교 (16.0%)  
 3순위 ①복지 (17.9%) ②경제(31.2%) ③교육 (28.0%) ④통일·외교(22.9%)  
 4순위 ①복지 (10.3%) ②경제(30.1%) ③교육 (14.2%) ④통일·외교(45.5%)

17. 귀하가 평소 정치·정책적(선거, 사회적 이슈 등) 판단에 영향을 크게 받는 요인 3개를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① TV (44.5%) ② 라디오 (0.9%) ③ 잡지 (0.7%) ④ 신문 (11.2%) ⑤ 가족 (4.9%)  
 ⑥ SNS (8.0%) ⑦ 교수 (0.6%) ⑧ 친구 (2.6%) ⑨ 포털 뉴스 (13.6%)  
 ⑩ 서적 및 정기간행물 (2.0%) ⑪ 인터넷 커뮤니티 (7.6%) ⑫ 유명 정치인 (1.2%)  
 ⑬ 연예인 (0%) ⑭ 기타 (0.5%)

18. 귀하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방송의 뉴스·시사 채널은 무엇입니까?

- ① KBS (19.3%) ② SBS (7.1%) ③ MBC (9.6%) ④ JTBC (22.8%) ⑤ YTN (13.7%)  
⑥ TV조선 (2.0%) ⑦ 뉴스Y (0.4%) ⑧ MBN (0.4%) ⑨ 채널A (0.4%) ⑩ 없음 (20.6%)  
⑪ 기타 (2.6%)

19. 귀하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종합 일간지는 무엇입니까?

- ① 읽지 않음 (49.0%) ② 조선일보 (11.7%) ③ 동아일보 (3.9%) ④ 중앙일보 (8.1%)  
⑤ 한겨레 (8.9%) ⑥ 경향신문 (4.9%) ⑦ 매일경제 (5.2%) ⑧ 한국일보 (1.1%)  
⑨ 문화일보 (0.0%) ⑩ 기타 (6.2%)

20. 귀하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SNS는 무엇입니까?

- ① 페이스북 (50.9%) ② 트위터 (5.8%) ③ 카카오톡 (21.3%) ④ 카카오토리 (1.3%)  
⑤ 텔레그램 (0.6%) ⑥ SNS를 사용하지 않음 (16.0%) ⑦ 기타 (3.2%)

21. 귀하가 정치에 참여하는 주된 방식은 무엇입니까?

- ① 투표 (70.7%) ② 인터넷 커뮤니티 (5.6%) ③ 정치관련 단체 활동 (1.6%) ④ SNS (5.8%)  
⑤ 시위 및 집회 참여 (0.4%) ⑥ 정당가입 및 활동 (0.4%) ⑦ 참여하지 않음 (15.2%)

### Ⅲ. 사회

22. 귀하가 주변에서 경험한 가장 심각한 갈등양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념갈등 (18.5%) ② 지역갈등 (11.4%) ③ 빈부갈등 (52.9%)  
④ 세대갈등 (10.7%) ⑤ 성별갈등 (4.5%) ⑥ 기타 (1.5%)

23. 평소 출·퇴근 시 본인에게 일어날까 걱정되는 안전사고는 무엇입니까?

- ① 대중교통 사고(가스폭발, 충돌, 문 끼임 등) (44.1%) ② 자가용 교통사고 (30.2%)  
③ 싱크홀 (5.5%) ④ 화재 (2.9%) ⑤ 붕괴사고(건물, 다리 등) (6.9%)  
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5.8%)  
⑦ 보행 중 낙하사고(간판, 환풍구 등) (1.3%) ⑧ 기타 : (1.2 %)

24. 귀하는 현재 내는 세금의 몇 % 만큼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100%로 표시)  
( 평균 23.03 ) %

25. 귀하는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복지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39.1%)  
② 필요한 가정에 수혜가 가는 선별적 복지 (53.6%)  
③ 잘 모르겠다 (7.0%)

26. 귀하는 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 지원 늘려 전면 계속 (33.6%) ② 소득 상위 제외 선별 실시 (57.1%)  
③ 잘 모르겠다 (9.3%)

27. 귀하는 3~5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정부 지원 늘려 전면 계속 (45.0%)    ② 선별적으로 실시 (47.8%)
- ③ 잘 모르겠다 (6.9%)

28. 귀하는 무상복지의 우선순위가 둘 중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3~5세의 무상보육 (52.4%)    ② 초등학교·중학교의 무상급식 (32.0%)
- ③ 잘 모르겠다 (15.2%)

29.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13.4%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면 몇 %까지 낼 의향이 있습니까? (주관식)

( 평균14.88 ) %

30. 귀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민연금 납부 선택제 도입 (34.1%)    ② 납부 금액의 축소 (11.7%)
- ③ 국민연금 혜택 확대 (25.4%)    ④ 수령액 확대 (15.2%)
- ⑤ 잘 모르겠다 (10.2%)    ⑥ 기타 : (1.0%)

31.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열정페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급여와 업무강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정페이: 인턴 등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열정이 있으니 적은 페이는 감수하라”는 식의 대우를 비꼬는 신조어

- ① 업무를 배우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급여는 중요하지 않다 (6.0%)
- ② 숙달되지 않은 초보이므로 급여를 적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2.5%)
- ③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65.9%)
- ④ 잘 모르겠다 (5.5%)

32. (기혼자 대상)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자녀교육문제 (7.7%)    ② 경제문제 (32.4%)    ③ 시댁과의 불화 (7.0%)
- ④ 성격차이 (26.1%)    ⑤ 외박 혹은 늦은 귀가 (5.6%)    ⑥ 술·담배 (1.4%)
- ⑦ 도박 (0%)    ⑧ 연애시절과 달라진 태도 (4.9%)    ⑨ 기타 : (2.8%)

33.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능력 (34.5%)    ② 학력 (11.7%)    ③ 성격 (3.5%)
- ④ 외모 (1.8%)    ⑤ (집안)배경 (29.7%)    ⑥ 출신지역 (0.3%)
- ⑦ 인맥 (16.2%)    ⑧ 기타 : (0.2%)

IV. 통일·남북관계

34 귀하는 북한을 어떠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 ① 적대 (36.7%)    ② 협력 (31.5%)    ③ 경쟁 (4.5%)
- ④ 기타 (10.7%)    ⑤ 잘 모르겠다(16.6%)

35 귀하는 현재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13.1%)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5.5%)  
③ 대체로 필요한 편이다 (37.9%)                      ④ 매우 필요하다 (13.1%)

36 귀하는 통일 가능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 ① 5년 이내 (4.1%)      ② 10년 이내 (17.4%)      ③ 20년 이내 (27.5%)  
④ 30년 이내 (17.7%)      ⑤ 30년 이후 (33.0%)

37 귀하가 북한에 대해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2개까지 가능)

- ① 정치 (34.2%)                      ② 경제 (29.3%)                      ③ 문화 (22.5%)  
④ 사고방식 (22.2%)                      ⑤ 언어 (4.6%)                      ⑥ 일상생활 (21.8%)  
⑦ 교육시스템 (4.6%)                      ⑧ 북한사람 (12.6%)                      ⑨ 기타 : (1.9%)

38 귀하는 북한 관련 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습득하고 있습니까?

- ① 가족·친구 및 지인 (6.3%)                      ② 인터넷 커뮤니티 (26.8%)  
③ 대북관련 SNS (3.1%)                      ④ 방송·신문 (60.4%)                      ⑤ 기타 : (1.7%)

39. 귀하는 장기간 통일세를 지불 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25.7%)                      ② 아니오 (51.6%)                      ③ 잘 모르겠다 (22.5%)

40. 귀하는 남북 관계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대북지원 (4.4%)                      ② 정치·군사대화 (16.8%)                      ③ 인도적 교류 (17.8%)  
④ 경제협력 (20.4%)                      ⑤ 사회문화교류 (27.4%)                      ⑥ 기타 (1.9%)  
⑦ 잘 모르겠다 (10.8%)

41. 귀하는 만약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다시 해온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군사적 대응 (39.7%)                      ② 대화를 통한 해결 (19.0%)  
③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 (31.6%)                      ④ 기타 (1.6%)                      ⑤ 잘 모르겠다 (7.7%)

42. 귀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인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폐기해야한다 (59.2%)                      ② 보유인정 (15.1%)  
③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한다 (17.4%)                      ④ 기타 (7.6%)

43. 귀하는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때 북한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핵무기 폐기해야 인도적 지원 (58.1%)                      ② 핵무기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 계속 (22.8%)  
③ 기타 (5.8%)                      ④ 잘 모르겠다 (13.0%)

44. 귀하는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 배포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배포행위와 언론보도 모두 자율이다 (31.3%)  
② 배포행위는 자유이지만 언론보도는 금지되어야한다 (16.7%)  
③ 배포행위 자체가 금지 되어야한다 (29.9%)                      ④ 기타 (3.9%)  
⑤ 잘 모르겠다 (17.4%)

45. 귀하는 통일이 될 경우 가장 큰 이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전쟁 가능성 감소 (30.9%)    ② 국제적 위상 증대 (11.1%)  
 ③ 민족 동질성 회복 (10.4%)    ④ 신성장 동력 확보 (40.5%)  
 ⑤ 잘 모르겠다 (6.5%)

46. 귀하는 통일 후 북한에서 일 할 기회가 있다면 가서 살 의향이 있습니까?

- ① 무조건 가서 살겠다 (1.3%)    ② 조건이 맞으면 의향 있다 (50.2%)  
 ③ 가지 않겠다 (37.2%)    ④ 잘 모르겠다 (10.9%)

47. 귀하는 통일 이후 남북한 통합의 저해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상호불신·적대감 (39.0%)    ② 역사·문화적 차이 (17.4%)  
 ③ 법제도 차이 (4.6%)    ④ 경제적 격차 (31.0%)  
 ⑤ 기타 : (1.3%)    ⑥ 잘 모르겠다 (5.5%)

48. 귀하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개입해선 안 된다 (5.7%)    ② 민간 NGO로 해결 (9.2%)  
 ③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 (51.2%)    ④ 적극 개입해야한다 (20.4%)  
 ⑤ 기타 (2.1%)    ⑥ 잘 모르겠다 (10.9%)

## V. 취업

49. 귀하는 졸업 후 취업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졸업 전 취업은 0으로 표시)

(      )년 (      )개월 평균 8.32개월

50. 귀하가 취업준비 기간 동안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취업정보 경로는 무엇입니까?

- ① 친구·지인·교수 등 인맥 (35.0%)    ②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8.9%)  
 ③ 기업 입사설명회 (4.5%)    ④ 취업박람회 (2.5%)  
 ⑤ 정부기관 사이트 (워크넷) (2.8%)  
 ⑥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등) (26.6%)  
 ⑦ 인터넷 카페 (닥치고 취업, 취업뽕개기, 스펙업 등) (12.8%)    ⑧ 기타 : (2.6%)

51. 귀하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맞춤 일자리 부재 (16.8%)    ② 취업 정보 부족 (19.4%)  
 ③ 취업 스펙(외국어, 자격증 등) 부족 (23.8%)    ④ 취업 준비 비용 부담 (5.4%)  
 ⑤ 정신적 압박 (27.8%)    ⑥ 기타: (2.6%)

52. 귀하는 취업준비 과정을 겪은 사람으로서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취업 스펙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2개까지 가능)

- ① 학벌 (16.4%)    ② 학점 (20.3%)    ③ 어학성적 (20.5%)  
 ④ 컴퓨터 활용능력 (18.8%)    ⑤ 인턴 및 아르바이트 경험 (12.9%)  
 ⑥ 대외활동 경력 및 공모전 수상경력 (14.5%)    ⑦ 봉사활동 경력 (35.7%)  
 ⑧ 석박사 학위 (18.0%)    ⑨ 기타 : (1.7%)

53. 귀하가 지난 대학생활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2개까지 가능)

- ① 해외경험을 충분히 못 해본 것 (48.8%)    ② 학업을 소홀히 한 것 (17.2%)
- ③ 학내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것 (15.4%)    ④ 대외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것 (23.8%)
- ⑤ 아르바이트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한 것 (6.5%)
- ⑥ 복수전공이나 교환학생 등 학교 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 (33.9%)
- ⑦ 이성교제 (12.3%)                                    ⑧ 기타 : (1.1%)

여의도연구원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연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연브리프」의 전문을 [www.ydi.or.kr](http://www.ydi.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기계산업진흥회 신관 3층  
전화: (02) 2070-3300 팩스: (02) 2070-3331 (우 150-729)